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4인 기준 월소득 877만원 이하 유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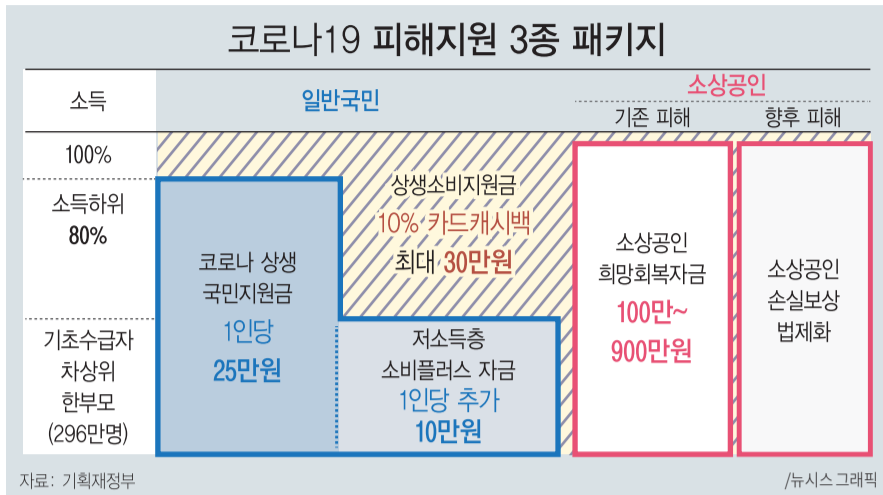
2차추경 범정부 회의

3종 지원 패키지 TF 구성·논의 소득하위 기준 건보료 토대 확정 상한 없이 1인당 25만원씩 지급 맞벌이 부부, 기준안 유연하게 적용

정부가 1인당 25만원을 주는 국민지원금의 가구별 소득 하위 80% 기준은 6월분까지 건강보험료를 토대로 확정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피해업종에 최대 900만원을 주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의 10% 캐시백 상생소비지원금 등의 세부 지급기준도 마련한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담긴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 관련 구체적인 지급 기준과 방식을 3주 간 논의해 국회 심의 전까지 확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 주재로 2차 추경 범정부 회의를 열어 3종 패키지 관련 범정부태스크포스(TF)를 구성, 논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총 33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중 코로나19 피해지원 3종 패키지는 15조7000억원 규모로 전체 추경 예산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3종 패키지는 소득하위 80%에 1인당 25만원과 저소득층에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국민지원금, 최대 900만원을 지급하는 소상공인피해지원금, 신용카드 사용액의 10% 환급하는 상생소비지원금이다.

우선, 국민지원금은 가구별 소득기준 하위 80%에게 1인당 25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지난해 4인 가구 이상 모두 100만원까지 상한을 뒤 지급했지만, 올해는 1인당 25만원씩 균등 지급하고 상한을 없앴다.

여기서 '소득하위 80%' 기준은 6월분 건강보험료와 주민등록정보를 반영해 정확한 기준을 마련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근거로 소득하위 80%와 유사한 기준중위소득



안도걸 기획재정부 제2차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1년 2차 추경 범정부 TF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정부는 생계를 달리해 각자 다른 도시에 사는 부부의 경우 본인 희망시 가구분리를 인정하기로 했다. 외벌이 가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 고려해 범정부 TF에서 논의한다.

구체적인 제도 설계 방안과 세부 실행계획은 국회 심의 전까지 3개 TF에서 마련한다.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한 달 내 지원금 지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르면 8월 여름 휴가, 늦어도 9월 추석 전까지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관계부처는 추경안 국회 제출 후 나오는 지적과 제언도 종합 분석할 예정이다. 이후 결과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필요시 추가 보완책도 마련할 계획이다.

안도걸 차관은 "국민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서는 금번 추경이 하루라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며 "추경안이 7월 임시국회 내 신속히 심의, 확정되도록 관계부처가 국회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대응 노력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 기자 won@metroseoul.co.kr

전 세계 뭉치돈 몰리는 ESG ETF

“하반기 ‘클린 에너지 테마’ 주목해야”

글로벌 ESG 지수 초과성과 기록 신규상품 출시 등 하반기 관심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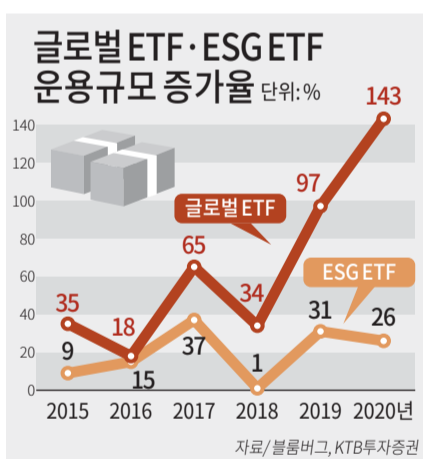
ESG(환경·사회적책임·지배구조) 성장지수펀드(ETF)에 전 세계 뭉치돈이 몰려들며 가파른 자금 유입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미국, 신흥국 ESG 지수가 모두 초과성과를 기록하며 상반기 ESG 기준 투자가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국내 ESG 상품 중에서도 대체로 ETF가 좋은 성과를 기록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상품 출시가 예고되며 글로벌 ESG ETF 시장이 달아올 것으로 예상된다.

◆글로벌 ESG ETF 연초비 960억달러 ↑

5일 ETF 리서치업체 ETFGI에 따르면 올 상반기 글로벌 ESG ETF 운용자산(AUM)은 3190억달러를 기록했다. 한화론 환산하면 362조원 수준으로 올해 초보다 960억달러 증가했다. 전체 주식형과 채권형 ESG ETF의 자산 규모는 각각 2790달러, 400억달러로 올해 상반기에만 각각 630억달러, 160억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다. 지난달까지 주식형은 64개월, 채권형은 15개월 동안 자금 순유입이란 진기록을 수립했다.

세계적 추세가 된 ESG에 대한 관심이 ETF 상품에 반영된 정황이다. 이에 따라 ESG 상품이 전체 ETF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대폭 늘어났다. 현재 전체 ETF 시장 규모는 9조1280억달러로 이 중 3.5%는 ESG ETF가 차지한다. 지난해 2.9%보다 0.6%포인트(p) 증가했다.

KTB투자증권 자료를 살펴보면 MSCI 전 세계 ESG 리더스(MSCI ACWI ESG Leaders) 지수는 벤치마크인 MSCI



전 세계 지수(MSCI ACWI 지수)보다 평균적으로 67%p 초과 수익률을 기록했다. 글로벌 ESG 지수뿐만이 아니다. 신흥국과 미국 ESG 지수도 각각 벤치마크보다 1.54%p, 2.27%p씩 상회했다.

국내 ESG 지수는 차이가 더 뚜렷하다. MSCI Korea 지수보다 8.61%p의 초과 성과를 보였다. 단기적으로 ESG 투자가 좋은 성과를 보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 ESG 지수 편입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그렇지 않은 기업보다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얘기다.

국내 ESG 상품 중에서 ETF가 다른 펀드보다 두드러진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날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브이아이자산운용의 '브이아이 FOCUSESGLeaders150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은 연초 대비 26.4% 오르며 이 기간 39개 상품 중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한국거래소에서 산출하는 'KRX ESG 리더스 150 지수'를 추종하는 패시브 ETF다. 이 지수는 전 거래일 2390.09에 마치며 올 들어 49.70% 상승했다. 19.65%의 수익을 내며 뒤를 이은 한화자산운용의 '한화AR

IRANGESG우수기업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주식) 역시 ETF였다.

◆하반기도 전망 '맑음'...신규 상품 출시 예고

하반기에도 ESG ETF에 대한 관심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신규 상품의 출시 등 시장을 달굴 만한 이벤트들이 즐비하다.

세계 최대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같은 흐름을 선도하고 있다는 평가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은 지난해 초 서한에서 "ESG를 추종하는 ETF를 두 배로 늘리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그의 공언대로 블랙록은 ESG 테마 상품을 꾸준히 늘려가는 중이다. 지난해 12개의 신규 ESG ETF 상품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엔 2개의 신규 저탄소 테마 ETF를 상장시켰다.

이는 자산순유입을 지향할 요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블랙록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ETF 상품 30개 모두 올해 자산순유입을 기록했다. 자금 유입 규모도 올해 상반기 152억달러를 기록하며 지난해 상반기 136억달러를 웃돌았다. 블랙록이 상장한 저탄소 전환 ETF인 '블랙록 US 카본 트랜지션 레디네스 ETF(LCTU)'에 지난 4월 8일(현지시간) 상장 첫날 12억5000만달러가 유입되며 미국 ETF 역사 30년 중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종현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하반기에도 신규 상품 출시가 예정돼 ESG ETF에 대한 관심은 계속 높아질 것"이라며 "올해 상반기에 수익률 측면에서 부진했던 클린 에너지 테마 ETF를 눈여겨보라"고 추천했다.

/송태화 기자 alvin@



고려아연 온산제련소.

최장근 “현장 안전사고방지 3500억 투입”

〈고려아연 회장〉



제련소 실시간 통합관제센터 구축

최장근 고려아연 회장이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칼을 빼들었다. 최근 계속되는 산업재해 사고를 막기 위해 대규모 투자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5일 안전관리에 3500억원을 추가로 투입하고 안전전담인력을 대폭 확충하는 등 중대재해 제로화 경영시스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개선방안의 핵심은 ▲안전경영체제로의 경영 패러다임 전환 ▲스마트 안전시스템 도입 ▲참여·협동형 현장중심 안전문화 강화 ▲협력사 위험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회사는 안전경영을 총괄할 경영조직으로 지속가능경영분부를 신설하고 외부 전문가와 노조를 포함한 내부 구성원이 참여하는 개방형 안전혁신위원회를 구성해 회사의 안전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지속적인 혁신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전담인력 28명으로 운영 중인 안전관리실을 106명으로 대폭 확충해 안전전담자 1인당 직원 수 13명 수준의 현장 실전 중심 다층 구조 안전관리조직으로 개편한다.

회사는 또 늦어도 4분기까지 제련소의 모든 상황을 실시간으로 관제하는

통합 관제센터를 착공해 위기 상황 시 신속한 대응과 전파를 통해 초기에 사고를 통제하는 스마트 안전시스템을 갖추기로 했다. 회사는 100% 공개형 안전 신고제로 임직원 누구나 언제든지 안전수칙 위반부터 공정, 설비, 작업상 위험, 불안 요인에 대해 설명 또는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무결재 인시던트(사고) 리포트 및 익명 신고 시스템을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이 외에도 현장 작업자 중심의 참여·협동형 안전문화를 강화하기 위해 현장 작업기준 개선 및 행동 단위 표준화, 리더·고수련자의 안전 리더십 강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행하기로 했다.

또 협력사의 안전관리 수준을 높이기 위해 대외협력방재팀을 신설해 협력사 안전관리 평가 강화, 무재해 달성 시 인센티브 도입, 안전교육 미달 작업자 출입제한 등 협력사도 고려아연과 동일한 수준의 안전관리시스템을 확보하게끔 지원하기로 했다.

최장근 회장은 “안전을 회사 경영철학의 제1원칙으로 삼고 고강도의 개선 대책을 마련해 가장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제련소가 되겠다”며 “경미한 안전 및 환경 사고도 누구나 거리낌 없이 공개해 신속히 해결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안전사업장으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